

제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통일열사들을 기리며 진지한 성찰의 기도를 올립니다.

6월항쟁의 주역이며 상징인 박종철 님, 이한열 님과 의명의 모든 희생자들 특히 시대의 고민을 껴안고 투신한 6월항쟁의 또 한 분의 주역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6·10민주항쟁 정신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10민주항쟁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각 부문 모든 영역,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연대와 결속을 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겸허하게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항일투쟁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간직한 우리는 전쟁과 기근,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용기 있고 슬기로운 겨레입니다. 또한 생명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민족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일체의 사리사욕을 끊고 집단 이기심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몸 바치는 제헌(祭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이 나라 강산이 마구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있고,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에 몰려있습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바쁠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위무(慰撫)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부당한 외세의 간섭에 당당히 맞섰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보편가치로, 이 기념식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펼쳐야 할 민족·민주주의 문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이를 깨닫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습니다. 거짓 언론들은 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초심의 순수성을 되찾아 정론을 펼쳐야 합니다. 삼성과 촛불재판에서 확인하듯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의 조롱을 받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력의 몽둥이가 되고 있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6·10민주항쟁은 공직자 모두의

철저한 쇄신과 근원적 자정을 진지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민주주의를 역행할 때마다 자유를 갈구하고 평등과 평화를 기원하고 못 살들의 생명을 존중하던 자비와 사랑의 사상은 위기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몰락합니다. 물량주의와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 토대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의 삶에 늘 신명을 불어넣어, 결코 시대정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길잡이이며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역사의식의 확인으로, 수천 년을 통해 사람들 마음에 뿌리내린 공유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관, 바른 공동체관, 바른 역사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6·10민주항쟁의 정신이며 참되고 굳건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행렬에서, 연이은 시국

선언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모습에서, 6·10민주항쟁의 현실적 의미와 교훈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저 빛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선열들이여, 이 나라를 돌보소서.

선열들이여,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주소서.

선열들이여, 우리 겨레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2009년 6월 10일 함세웅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7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이호룡, 이종률, 황정욱, 현중철 편집취재 송동현,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책머리에
제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평화시장, 그 오랜 기억의 망루에서 돌아보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발화점 청계피복노조 | 김기선



14 특별기고
6월항쟁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와 87년체제' | 김현구

20 기획연재 _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케냐의 민주주의 | 김광수

26 사료이야기
사료 속의 노무현 | 여수갑

30 사업회 소식
이사직을 시작하며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 개최 등

36 사업회 소식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탐방 - 경북 포항, 영덕, 안동지역 | 양금식
풀뿌리운동 - 통하고 찾고 되새기다 | 조이현임

44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개같은 시대,
작가들의 휴식처 '대교' | 김학민

48 문화초대석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거리의 시인 '별음자리표' | 김미영

54 계시판

56 독자마당



36



44



48